

건축이 기억하는 것

동해 폐쇄석장 리모델링

김효영

김효영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위치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762-6
용도	문화 및 접회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717,831m ²
건축면적	638,62m ²
연면적	2,061,03m ²
규모	지하 4층, 지상 4층
주차	23대
높이	27.7m
건폐율	2,67%
용적률	3,75%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골함석강판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페인트
설계	김효영건축사사무소, 정희철
설계담당	안성우, 성연학
구조설계	(주)이든구조컨설팅
시공	건원종합개발주식회사
기계설계	(주)하나기연
전기설계	(주)하나기연
설계기간	2019. 12.~2020. 10.
시공기간	2020. 12.~2021. 11.
준공	2021. 11.
건축주	동해시



폐쇄설장 전경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많은 층위의 고려해야 할 내용과 의미를 가진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 변화해 온 환경,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
기존의 구조와 재료 등 어느 한쪽으로 무게를 기울이거나 지나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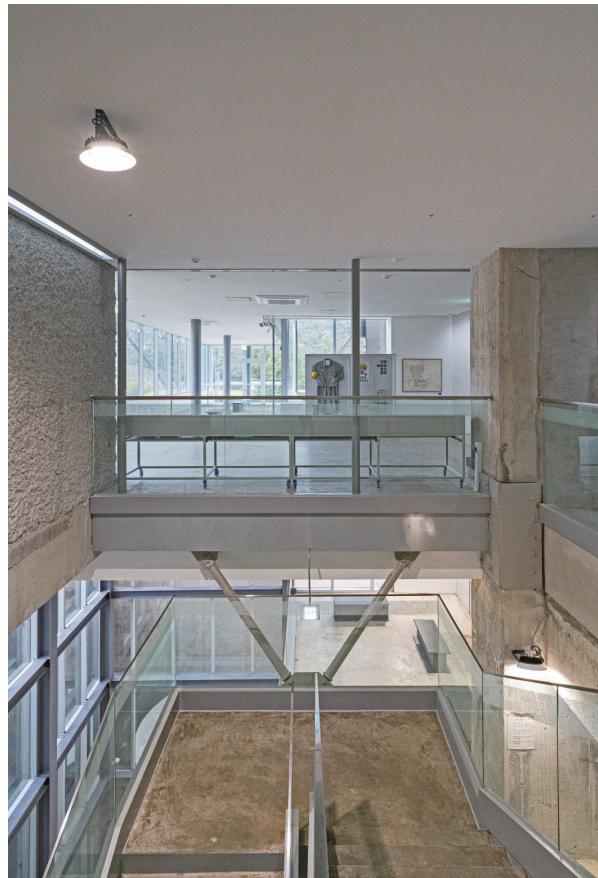


기존의 것과 새로 더한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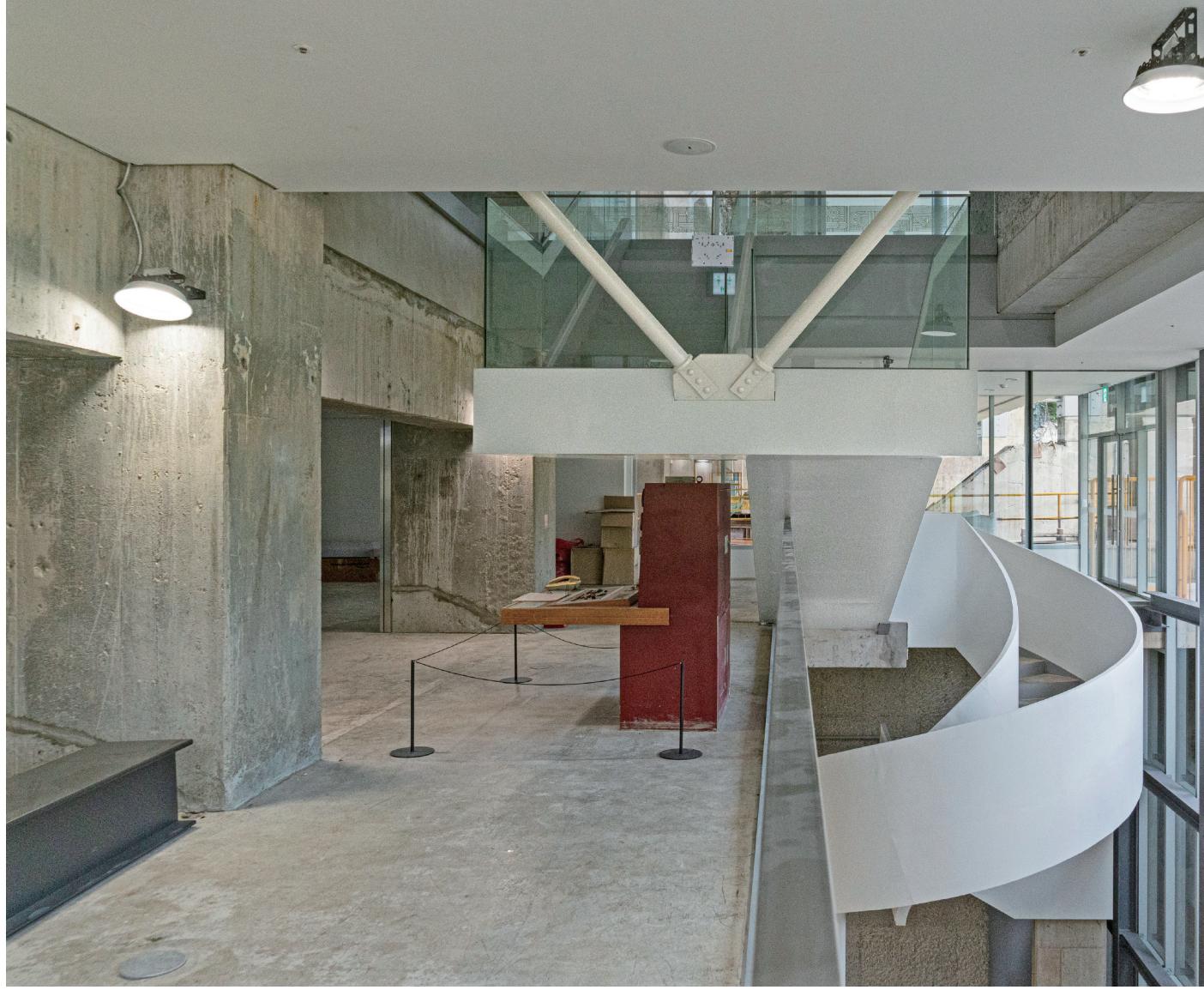


진입로에서 바라본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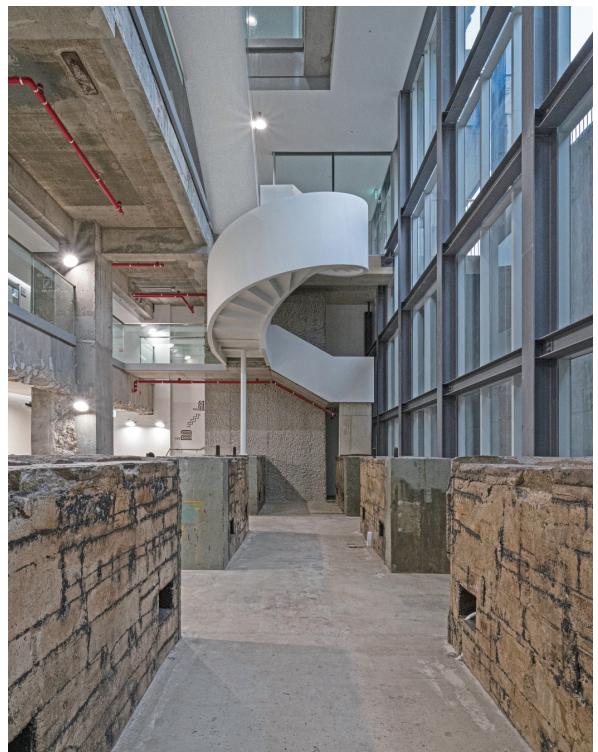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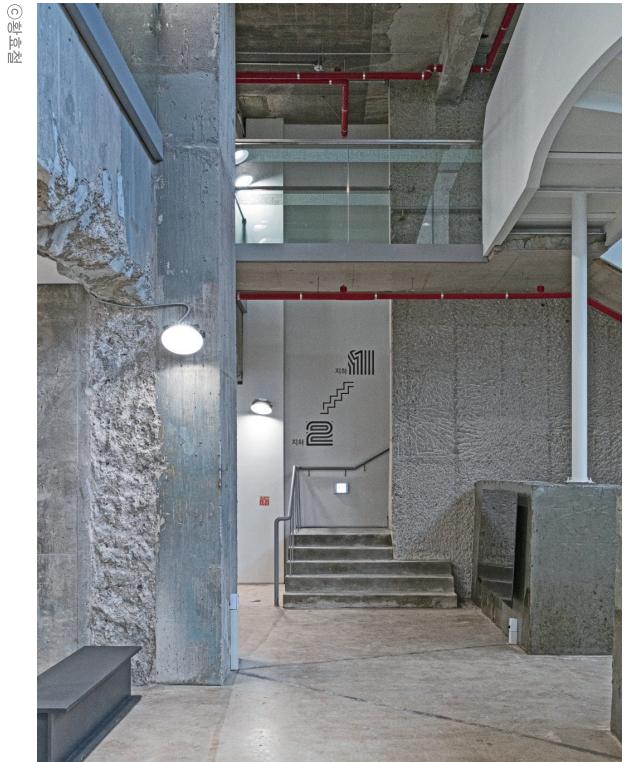


좌 진입로

우 내부를 관통하는 계단실



지하 2층 홀에서 지상 2층의 전시실까지 연결하는 계단



상 내부를 연결하는 계단 입구
하 콘크리트와 철골, 직선과 원형의 공간

폐쇄석장은 아름다운 호수와
라벤더꽃을 보러, 또는 루지나
스카이글라이더를 즐기려 온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전시품과 함께
자신의 몸으로 과거의 시간을
잠시나마 만나게 한다.

⑤
영원호수



주변과 어우러진 건축의 모습

폐쇄석장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많은 충위의 고려해야 할 내용과 의미를 가진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 변화해 온 환경,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 기존의 구조와 재료 등 어느 한쪽으로 무게를 기울이거나 지나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건축이 오랜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40년간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3지구를 동해시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면서 석회석을 잘게 부수는 시설이던 폐쇄석장을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이 사업이 2019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공모가 진행되었다.

자화상

도시를 가로지르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처음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녹빛의 호수가 무척 인상적이었고, 쇄석장 건물은 마당에 쌓여 있는 돌덩이 너머로 호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쇄석장은 시멘트를 파내는 구덩이가 깊어지고 그곳에 물이 채워져 호수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였을 것이다. 육중한 구조물과 거대한 설비들이 힘차게 움직였을 시절의 자부심을 보여주면서도, 할 일을 마치는 순간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낯선 공간은 그 쓸쓸함을 전해 주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는 시점에

©김호영건축사사무소



상 폐쇄석장 전경
하 기존의 것과 새로 더한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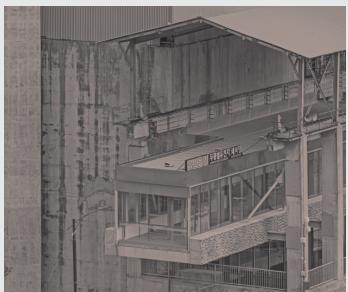
©김호영건축사사무소



리모델링 전 쇄석장



①
한국화력



상
중 · 하
진입로에서 바라본 건축
쇄석장 측면

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나온 과거를 연민으로 위로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날선 비판으로 질문하며 변화를 위한 결심과 기대를 표현하는 일이 마치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는 일처럼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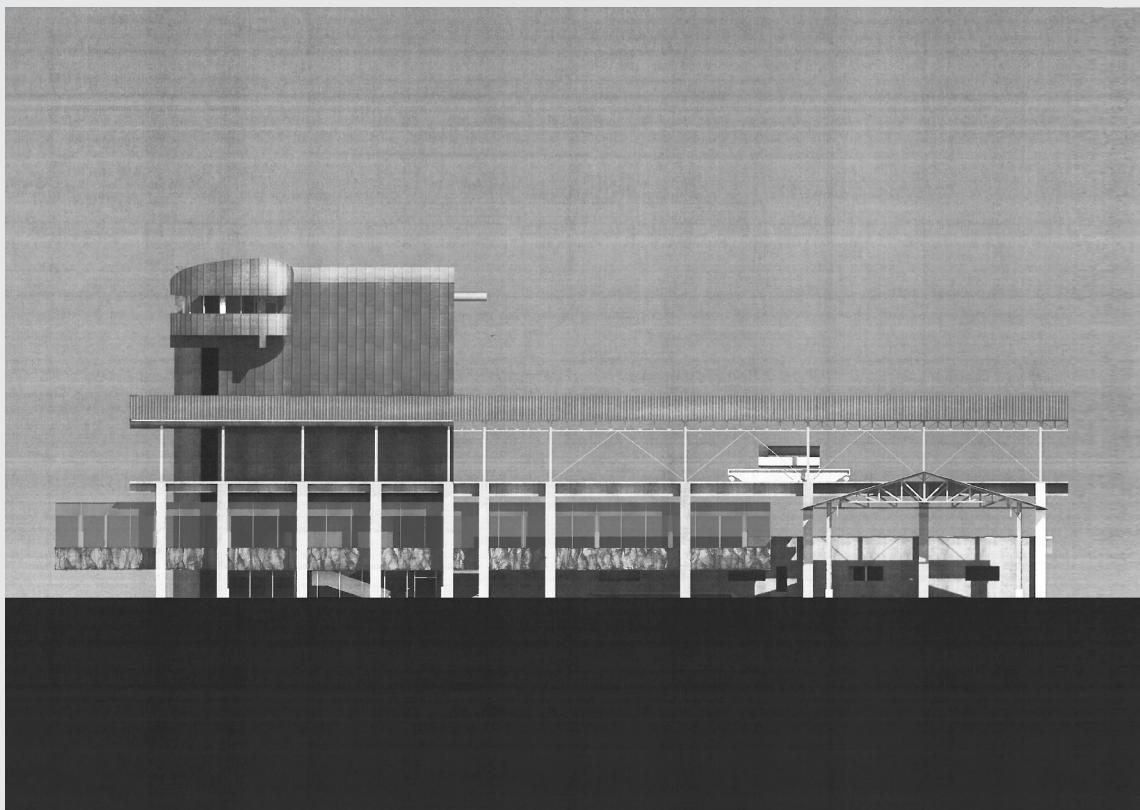
이전의 기억과 새로운 역할

쇄석장은 석회석의 처리 과정이 공간의 구성으로 드러나는데, 석회석을 부수기 위한 설비가 나열되는 수평의 외부공간과 각 단계로 중력과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하는 수직의 내부공간의 강한 대비가 외부의 형태를 특징지어 준다. 또한 과도하게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과 벽, 가볍고 세장한 금속트러스의 지붕, 분쇄기를 받치고 있던 여섯 개의 콘크리트 기단, 꼭대기에서 굴뚝을 내밀고 있는 거대한 집진설비와 컨베이어벨트 등의 요소들이 산업시설의 낯선 분위기를 만들고 이전의 기억을 전달해 주었다.

기능을 잃어버린 기존의 공간구조와 요소들은 원형대로 유지한 반면에 새로운 기능을 위한 공간들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덧붙거나 끼워져 기존의 것과 구별하려 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정체성과 새로운 쓰임을 대비시켜 둘 모두를 훼손 없이 명료하게 하려는 이유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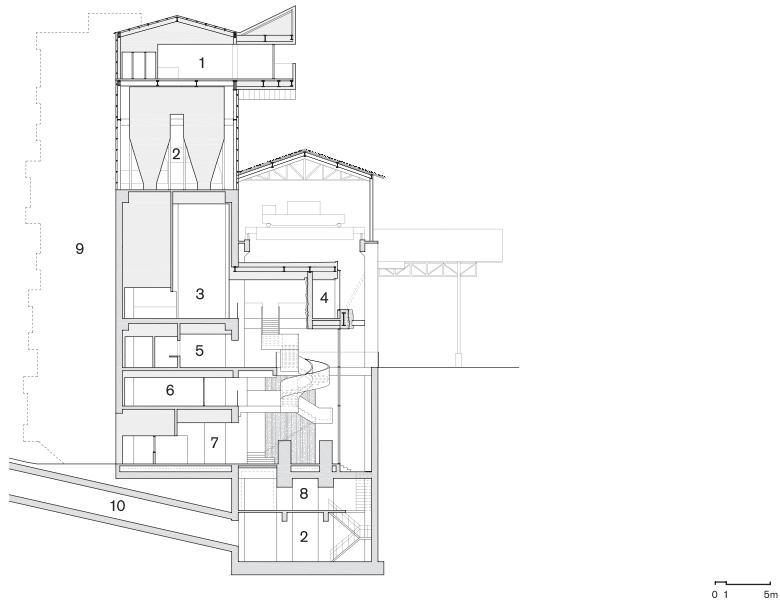
세 개의 덧붙은 덩어리

새로운 기능을 위해 추가된 공간은 세 개의 덩어리로 기존 구성을 따라 수직과 수평, 꼭대기의 등그런 덩어리가 덧붙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수직의 내부공간 후면 모서리에 붙듯이 연결되는데, 엘리베이터의 수직선과 함께 모두 다른 높이의 충을 연결하는 다른 길이의 계단이 마치 깃발과 같이 덧대어져 수직성을 강조한다. 22개의 기둥에 둘러싸인 외부공간 안쪽으로 증축된 수평의 공간은 떠 있듯이 간신히 지지하며 기둥 사이를 길게 관통하여 형태적이고 구조적인 모험을 감행한다. 이곳은 2층의 홀과 함께 전시의 기능을 하지만 기둥 위의 크레인이 다니던 방향을 따라 기존의 시설을 살펴보며 관람하는 곳이기도 하다. 제일 높은 곳의 전망대는 골강판으로 둘러싸인 박공 형태의 모서리에 부정형의 평면으로 매달리듯 돌출되어 안쪽으로는 남겨진 집진설비를 바라보고 밖으로는 단지의 경관을 조망하는데, 외부의 모습에 있어 시설의 새로운 사용과 변화를 알리는 사인(sign)과도 같은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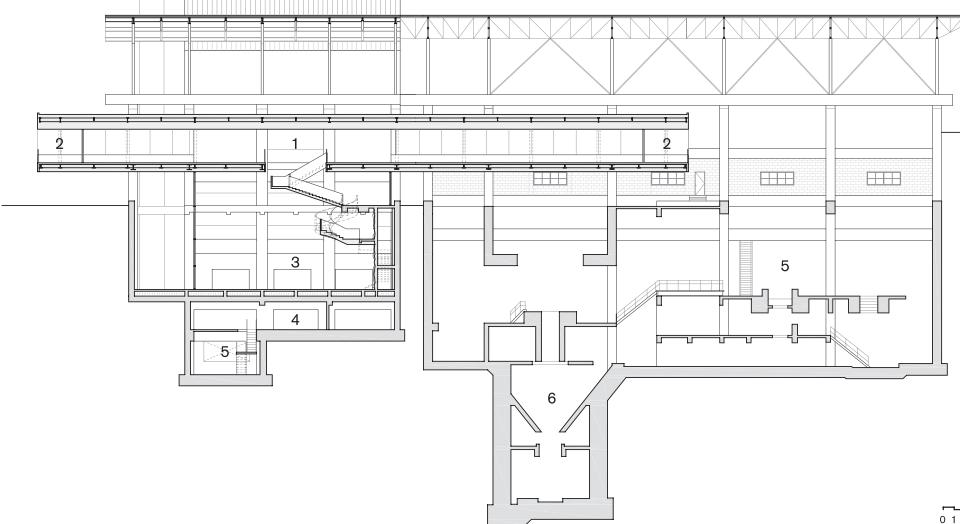


일면도

- 1 전망카페
- 2 기존 채석장 공간
- 3 전시공간 홀
- 4 전시공간
- 5 홀
- 6 사무실
- 7 홀
- 8 기계실
- 9 증축 코어
- 10 컨베이어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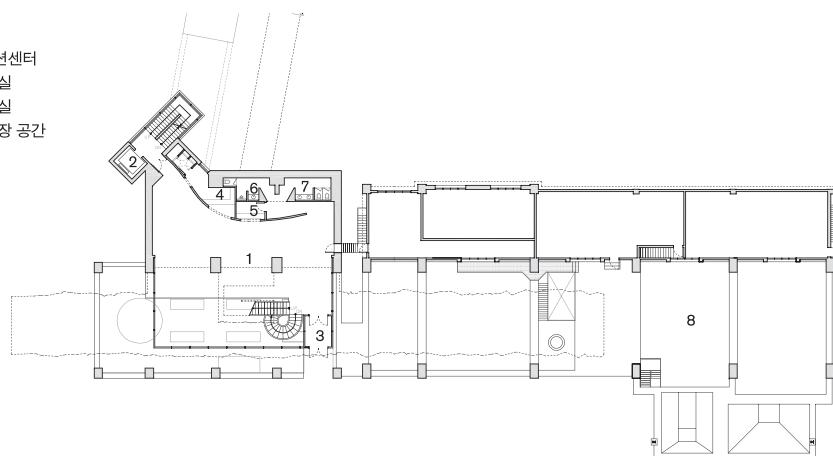


- 1 전시공간
- 2 테라스
- 3 홀
- 4 기계실
- 5 기존 채석장 공간
- 6 채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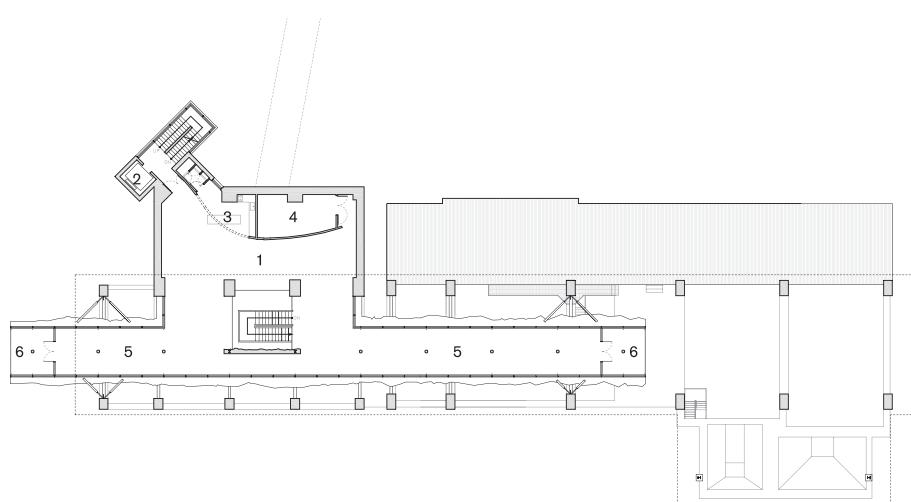
단면도

- 1 홀
- 2 엘리베이터
- 3 입구
- 4 상점
- 5 인포메이션센터
- 6 남자 화장실
- 7 여자 화장실
- 8 기존 쇄석장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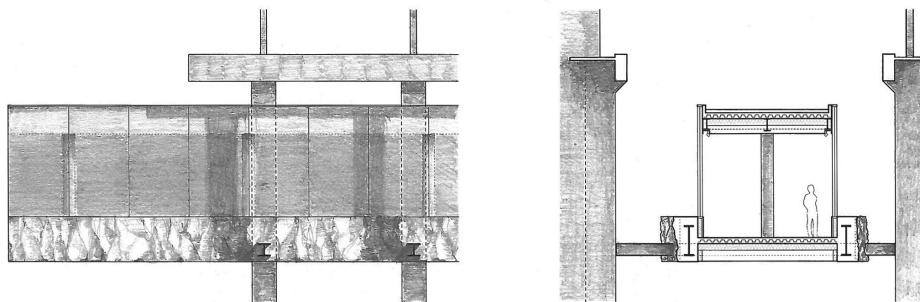
0 1 5m

- 1 홀
- 2 엘리베이터
- 3 조리실
- 4 창고
- 5 전시공간
- 6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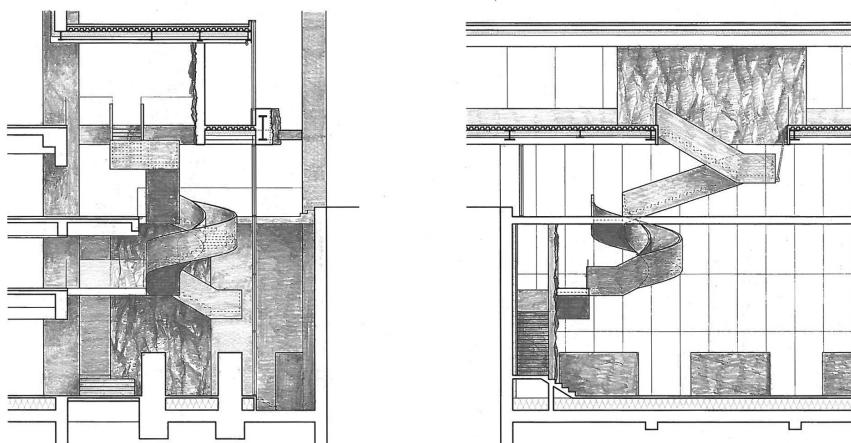


0 1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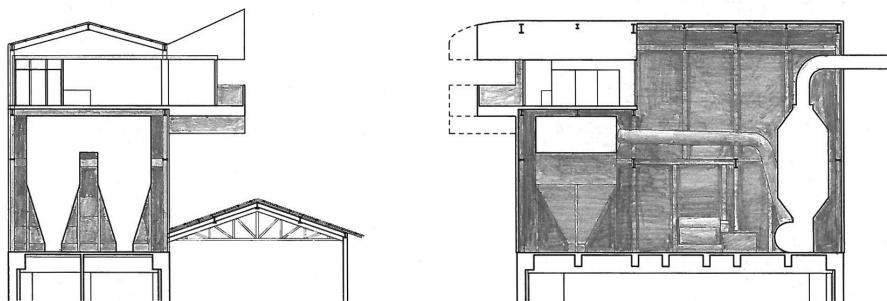
1,2층 평면도



2층 전시공간



중앙홀 계단



4층 전망카페

거칠고 매끈한 것 사이를 탐험하는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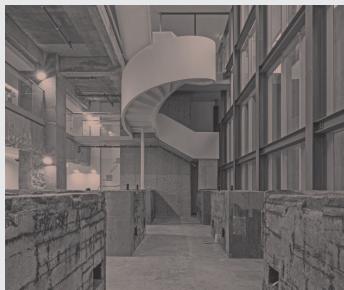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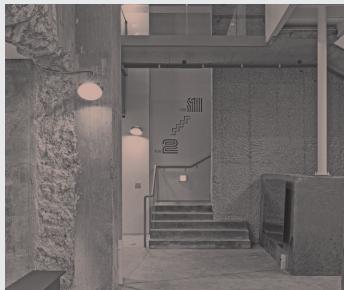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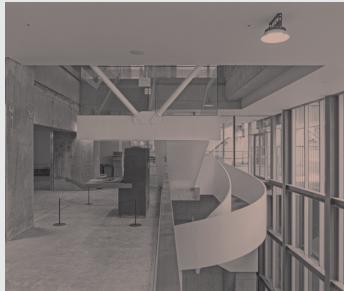
진입하는 방향의 높이가 전면마당보다 낮은 까닭에 내부의 경험은 지하에서 시작한다. 문을 열자마자 마치 폐허의 유적처럼 남겨진 여섯 개의 콘크리트 기단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크기는 위에 올려져 있던 돌을 부수는 설비의 위용을 짐작하게 한다. 내부공간은 닫힌 공간을 열기 위해 기존의 콘크리트구조를 거칠게 깨어낸 자국과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매끈한 벽이 층마다 반복되며 대비된다.

지하 2층의 훌에서 지상 2층의 전시실까지 연결하는 계단은 콘크리트와 철골, 직선과 원형의 형태를 공중에 그려낸다. 계단을 따라 공간을 굽이굽이 오르고 내려다보는 다양한 시선은 콘크리트의 ‘거친 옛것’과 ‘매끈한 새것’ 사이를 탐험하듯 가로지르며, 시멘트를 만들던 공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시간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한다.

기억의 건축, 건축의 기억

공사가 시작되기 전 수집된 물품들 중에는 버려진 안전모와 작업복, 뜯금없이 아름답게 색칠된 설비 도면과 함께 수많은 안전제일 표지들이 있었다. 작업을 위해 드나들던 입구 위에, 또는 철거되거나 남겨진 벽의 곳곳에 붙어 있었을 이 표지들은 이제 이곳에 박물관의 유물처럼 전시되어 과거의 절실함과 고단함을 전해 준다.

무릉3지구는 2021년 11월 ‘무릉별유천지’라는 이름의 관광 단지로 개장하였고, 폐쇄식장은 아름다운 호수와 라벤더꽃을 보러, 또는 루지나 스카이글라이더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전시품과 함께 자신의 몸으로 과거의 시간을 잠시나마 만나게 한다. 건축의 기억을 유지하여 마련된 이 만남이 서로의 시대에 대한 돌아봄을 통해 지금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존중과 시간을 넘는 유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상 지하 2층 훌에서 지상 2층의 전시실까지
연결하는 계단

중 내부를 연결하는 계단 입구

하 콘크리트와 철골, 직선과 원형의 공간